

【논문】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

이 충 진

【주제분류】 역사철학

【주요어】 역사, 역사징표, 관찰자의 사유방식, 목적론, 칸트

【요약문】 칸트의 역사철학은 대부분 목적론적 역사철학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인류의 역사는 자연에 의해 기획되고 진행되는 ‘자연의 역사’의 일부이다. 이때 역사 이해의 방법론적 원리는 ‘반성적 판단력의 합목적성’이다. 그런데 칸트의 마지막 저서인 『학부들 사이의 논쟁』의 ‘제2부’는 이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역사이해를 제공한다. 이 텍스트에는 자연목적론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으며, 심지어 ‘인류 역사는 진보할 것이다.’라는 명제가 “모든 비판에도 유지가능한” 객관적 타당성을 가진 명제로 제시되고 있다. - 이 논문은 이와 같은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 논문은 역사연구의 ‘방법’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 ‘역사징표 Geschichtszeichen’의 인식적 기능을 밝히고, 그에 의거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바의 ‘미래 역사의 구체적 모습’을 확인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논문은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드러내고 동시에 그것의 현재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I. 처음에

포어랜더Vorlaender는 1913년 “칸트의 역사철학, 윤리학 및 정치학에 관한 작은 글들”이란 제목의 책을 편집·출간했다. 이 책에서 역사철학에 관련된 텍스트는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1784」, 「헤르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원연구장려금 지원과제임.

더의 인류 역사의 철학에 대한 이념들’에 대한 논평, 1785], 「추측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 1786」 등 3편이었다. 하지만 조금 확장된 시선으로 접근하면 포어랜더가 윤리학 및 정치학에 관련된 저서라고 제시한 텍스트 중 일부, 가령 「속언에 관하여, 1793」의 제3부,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1795』 역시 칸트 역사철학에 해당되는 텍스트라고 평가할 수 있다.¹⁾ 뿐만 아니라 이 편집서에는 없지만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 1784」과 『학부들의 논쟁, 1798』의 제2부는 물론이고 『판단력비판, 1790』 역시 칸트 역사철학의 이해를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할 텍스트임이 분명하다.²⁾

지난 200년 동안의 관련 연구를 되돌아보면 우리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연구자는 「이념」을 반드시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대부분 그것을 가장 중요한 텍스트로 간주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역사 속의 이성, 이성 안의 역사』에서 칸트 역사철학을 소개하기 위해 오직 「이념」만에 주목하고 있는 김수배와 역사철학 일반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이한구 역시 그런 연구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것은 이 초기의 텍스트가 칸트 역사철학을 대표하기에 충분하다는 판단에 기인할 것이다.

「이념」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단서는 물론 자연목적론이다. 인류의 역사를 자연의 역사로 제시하는 목적론적 시각은 이후 『영구평화론』과 「속언에 관하여」에도 등장한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후자의 목적론은 전자와 상당히 다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구평화론』에서 자연은 인류 역사의 기획자이자 진행 주체라는 적극적 지위를 더 이상 갖지 않으며, 단지 목적 도달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후견인의 지위에 머물러 있다.³⁾ 이러한 차이에 주목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영구평화론』에는 「이념」에서와는 다른 역사철학이 존재한다.’라고

-
- 1) 참조: 김수배, 『역사 속의 이성, 이성 안의 역사』; 이한구, 「칸트와 목적론적 역사」.
 - 2) 참조: Kant,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sphilosophie, Ethik und Politik*, Hrsg. K. Vorlaender. 각 텍스트의 제목은 이한구의 번역(칸트, 『칸트의 역사철학』, 이한구 편역)을 따랐다. 이후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은 「이념」으로, 『학부들의 논쟁』은 『논쟁』으로,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는 『영구평화론』으로 표시함.
 - 3) 참조: 칸트, 『영구평화론』, ‘제1추가조항’, 43-54; Honneth, “Geschichte als Fortschritt?”, 132-133.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삼십 명이 넘는 사상가들의 텍스트 중에서 역사철학적으로 중요한 것만 선별해서 강독용 교재 *Arbeitsbuch*를 출간한 윌뮐러 Oelmueller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칸트 역사철학을 위해 그는 「이념」의 제8명제와 제9명제 및 『논쟁』을 선택했는데,⁴⁾ 분량으로만 보아도 현저하게 눈에 띄는 이러한 비대칭은 ‘『논쟁』이 칸트 역사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의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마도 우리는 칸트의 마지막 저서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역사철학을 보게 될 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개의 칸트 역사철학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세 개의 칸트 역사철학’을 대표하는 가장 주요한 텍스트는 클라인겔트 Kleingeld의 1994년 학위논문 『진보와 이성 - 칸트의 역사철학』이다. 이 저서에서 그는 ‘역사철학자로서의 칸트는 세 개의 상이한 시기에 각기 상이한 관심과 연구방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입증했다. 이러한 주장은 2006년의 호네트 Honneth에 의해 다시 확인되었다.⁵⁾ 이들에 따르면 자연목적론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역사철학이 칸트에게서 발견되며, 그를 위한 가장 중요한 텍스트는 『논쟁』인 셈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제3의 칸트 역사철학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논쟁』의 핵심 논의를 추적할 것이며(§2, §3, §4), 또한 기존의 연구가들이 주목하지 않은 주제를 해석함으로써(§5) 칸트 역사철학의 한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해석을 토대로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이 전기와 중기의 자연목적론적 역사이해와 비교될 것이다(§6). 이러한 논의가 성공한다면 우리는 칸트 역사철학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특히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이 가진 현재성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 참조: Oelmueller(hrsg), *Philosophische Arbeitsbücher 4. Diskurs: Geschichte*.

5) 참조: Kleingeld, *Fortschritt und Vernunft*, Honneth, “Geschichte als Fortschritt?”

II. 역사 연구의 대상과 방법

18세기 후반 유럽엔 역사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일천했고 관련 연구의 결과가 충분히 축적되어 않았다. 그러므로 이 시기 역사철학의 스펙트럼은 사실 상 무한히 열려 있는 셈이었다. 그런 상황은 연구자에게 두 가지 가능성을, 즉 한편으론 아무런 선행 제한 없이 자유로이 연구할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을, 동시에 다른 한편 연구 방향을 가늠하기 위한 “더듬기(herumtappen)”에⁶⁾ 주력하다가 실질적인 연구는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부정적 가능성을 모두 제공한다. 때문에 현명한 연구자라면 연구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잠정적으로나마 미리 특정함으로써 연구 진행상의 비효율성을 미리 방지할 것이다.

1790년대 노년의 칸트는 그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처럼 보인다. 칸트는 20쪽도 안 되는 짧은 글인 『논쟁』 제2부의 각 단락에 길고 자세한 소제목을 붙였는데, 이 소제목만 훑어보아도 우리는 이 텍스트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물론이고 논의의 방법, 범위, 기본 입장 및 심지어 반대이론들까지도 한 눈에 개괄할 수 있을 정도이다.

먼저 칸트는 논의의 대상을 인류의 도덕적 역사로 제한한다. 이로써 칸트는 자신이 20여 년 전 「이념」에서 다루었던 문화의 역사 내지는 문명의 역사를 『논쟁』의 논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그 다음 칸트는 도덕의 역사가 가지는 여러 모습 중에서 자신이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그것은 두 부분인데, 하나는 ‘미래의’ 역사이며 다른 하나는 ‘진보 여부’이다. 이를 통해 칸트는 역사철학자로서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특정한다: 인류 역사는 도덕의 관점에서 평가했을 때 진보해 갈 것인가?(§1:77 참조)⁷⁾

그런데 이 물음은 역사철학자에게 그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을 일깨워 준다. 역사철학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현재 시점에서 인식하고 언명해야 한다는 사실, 즉 미래를 예측(vorhersagen)해야 한다는 사실이 그것이다.⁸⁾

6) 칸트, 『순수이성비판』, 27/B VII.

7) Kant, *Der Streit der Fakultäten*, §1, 77쪽을 지칭함.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

철학자의 미래 예측은 물론 과거 역사에 대한 경험적 탐구에 토대하여 감행되는 개연적 미래 예측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다. 그것은 - 칸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해서 말하자면 - “선천적 역사 eine Geschichte a priori”의 (§2:78) 한 부분으로서만 성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천적 역사’의 연구란 - 그 표현만으로도 - 일종의 자기모순을 포함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선천적’이란 말은 모든 경험과의 관계가 사상된 것을 의미하되, 우리는 경험 사실을 포함하지 않는 역사를 생각할 수 없는 바, 이와 같은 ‘경험적인 것에 대한 비경험적 연구’라는 일종의 부조리함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조리함은 우리를 불가피하게 하나의 방법론적 물음으로 이끌어 간다: “어떻게 선천적 역사가 가능한가?” (§2:78)

칸트는 역사에 대한 철학적 연구를 앞두고 - 자신의 다른 연구들에서처럼 - ‘내용의 물음’에 앞서서 먼저 ‘방법의 물음’을 던진다. 또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후자에 대한 답변은 전자에 대한 답변을 위해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즉 ‘인류 역사의 도덕적 진보의 모습’에 대한 대답은 ‘미래 역사의 예측 방법’에 대한 대답에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방법에 관한 논의가 바로 『논쟁』에서 가장 많이 주목되어 왔던 “역사징표라는 개념의 주위를 회전하고 있는 논의”이다.⁹⁾

8) 예측적 역사는 사실에 근거한 것과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될 수 있다. 둘 다 모두 미래를 예측하지만 전자는 진정한 의미의 이론적 예측이라 부를 수 있되 후자는 기껏해야 점술적 예언이라 부를 수 있을 뿐이다. 『논쟁』에서는 오직 전자만이 논의의 대상이다. 2012년의 논문에서(참조: 이충진, 「정치와 역사 - 칸트의 경우」, 15-16) 나는 이 셋을 올바르게 구분하지 못하는 오류를 범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Man verlangt ein Stück von der Menschengeschichte und zwar nicht das von der vergangenen, sondern der künftigen Zeit, mithin eine vorhersagende, welche, wenn sie nicht nach bekannten Naturgesetzen (wie Sonnen- und Mondfinsternisse) geführt wird, wahrsagend und doch natürlich, kann sie aber nicht anders, als durch übernatürliche Mittheilung und Erweiterung der Aussicht in die künftige Zeit erworben werden, weissagend (prophetisch) genannt wird.” (§1:77)

9) Kleingeld, *Fortschritt und Vernunft*, 85. 그것은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이 전기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지점이기도 하다.

Ⅲ. 미래 역사의 예측 - 역사징표

어떻게 우리는 미래 역사를 현재 시점에서 예측할 수 있을까? 더욱이 미래 예측의 근거가 과거/현재의 “경험적 소여 Data(경험 Erfahrungen)”뿐이 되 (§9:91), 소여들 사이에 법칙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지극히 엄밀한 이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für die strengste Theorie haltbarer” (§7:88) 그런 예측이 가능한가?

이와 관련해서 칸트는 두 개의 명확한 언급을 남겨두었다. 하나는 부정적인 언급이다: “[역사의] 진보라는 과제는 경험에 의거해서 직접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4:81)¹⁰⁾ 칸트가 대답하고자 하는 물음이 선천적 역사의 가능성임에 주목해보면 이곳의 불가능성은 전혀 어려움 없이 이해될 수 있다. 현재의 내가 미래 사건을 예측하려면 미래 사건을 결과로 갖는 과거/현재의 사건이 존재해야 하는데, 달리 말하자면, 현재의 현상 사건과 미래의 현상 사건 사이에 원인·결과라는 법칙적 연관이 성립해야 하는데, 역사적 사건 사이에는 이와 같은 법칙적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칸트의 언어를 빌어 다시 말하자면, 미래의 예측을 위해서는 “자연 법칙에 따른 연관이 필요한데, 미래의 자유로운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위한] 실마리나 안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4:82) 그 때문에 경험은 미래 역사의 물음을 해결할 수 없다.

다른 하나의 긍정적인 언급은 다음과 같다: “진리에언적 인류 역사는 어떤 하나의 경험과 결부되어 anknuepfen 있어야만 한다.” (§5:83) 비록 앞의 언급과 일견 상충하는 듯이 보이며 또한 ‘선천적 역사’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이 보이는 이 언급은 -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듯이 - 그렇게 부조리한 것만은 아니다. 경험 연관성을 모두 벗어난 상태에서 역사를 이해하고 예언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4:82 참조) 미래 역사에 대한 예언은 어떤 식으로는 또 어떤 형태로든 과거/현재의 경험과 연관되어 있어야함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위의 언급은 달리 표현하면 “사건으로서의”¹¹⁾ “[미래 예언과 결부되어 있는] 어떤 하나의 경험이 인간

10) 인용문 안에 있는 ‘[]’은 필자가 임의로 삽입한 것이다. 이하 같은 방식으로 표시함.

중 안에 등장해야만 한다.”라는(§5:83)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는 것에 다르 아니다.

이곳에서 등장하는 ‘하나의 경험’이 칸트가 이론철학에서 이야기하는 바의 경험이나 또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해하는 경험이 아님은 분명하다. 그것은 미래 역사의 예언과 불가피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경험일 것이며, 아마도 우리가 흔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부를만한 그런 것일 터이다. 미래 역사의 예언과 관련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의 경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에 답할 수 있는 단서는 다음과 같은 칸트의 언급이다: “그것은 인간종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성과 하나의 능력을 지시하는 그와 같은 경험이다. ‘인간종이 더 좋은 것으로 전진함’의 원인이면서 또한 그것의 창시자라는 특성과 능력 말이다.”(§5:83)¹²⁾

먼저 우리는 칸트의 압축된 언급을 분석해 보자. 첫째, 그 하나의 경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적 특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현상 존재자로서의 인간은 시간 계열 상에 존재하며 그의 존재/행위는 시간적으로 후속하는 현상 사건의 원인으로 작동한다. 둘째,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지적 능력을 드러내 보여준다: 예지적 존재자로서의 인간, 즉 “자유라는 소질을 가진 존재자”로서의(§5:83) 인간은 현상 사건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창시자 Urheber’이다. - 이렇듯 그 경험은 우리에게 ‘인간이 두 세계의 시민임’을 고지(告知, hinweisen)하는 기능을 가진, 그와 같은 경험이다.

이제 우리는 ‘고지된 hingewiesen’ 두 세계 각각의 관점에서 ‘이 하나의’ 경험을 살펴보자.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가진 두 개의 상이한 측면을 발견

11) ‘사건’은 독일어 ‘Begebenheit’를 옮긴 것이다. ‘Begebenheit’는 예지 원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현상계 안에 ‘발생하는 사건’이며, 현상계 안에서의 위상 측면에서 보면 발생의 결과로 만들어진 ‘소여’이다. 이 논문에서 ‘사건’이라고 말할 때는 언제나 두 측면 모두를 지칭한다. 이것은 현상 원인의 결과로서 주어진 현상 소여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12) 원문은 다음과 같다: “Es muß irgend eine Erfahrung im Menschengeschlechte vorkommen, die als eine Begebenheit auf eine Beschaffenheit und ein Vermögen desselben hinweist, Ursache von dem Fortrücken desselben zum Besseren und (da dieses die That eines mit Freiheit begabten Wesens sein soll) Urheber desselben zu sein.” - 동일한 원문이라도 문맥에 따라 다르게 번역했다.

하게 된다. 먼저 예지 원인과의 관계에서 보면 그것은 하나의 현상적 결과이며 창설자Urheber에 의해 만들어진 하나의 산물Produkt이다. 동시에 그것은 현상 계열에서 보면 하나의 현재 사건인바, 자신에 후속하는 미래 사건의 원인(Ur-Sache)이기도 하다. - 이렇듯 ‘하나의 동일한 경험’은 이중적 모습을 가진 것으로, 즉 예지 세계와의 연관 아래에선 현상적 결과로, 현상 세계와의 연관 아래에선 후속할 사태의 원인이라는 모습을 가진 것으로 등장한다.

칸트는 역사 예측의 가능성을 바로 이와 같은 이중성에 근거 지운다. ‘그 경험’은 먼저 - 그것이 가진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 하나의 사실, 즉 ‘그 경험은 인간 의지의 산물이며,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보장한다. 또한 그 경험은 - 그것이 가진 후자의 측면에서 보면 -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사건(원인)에 토대해서 미래의 사건(결과)을 예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확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토대로 미래 역사를 예측할 수 있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칸트가 구상한 이와 같은 방법과 내용을 가진 역사 연구와 역사 예언은 경험적 역사 연구도, 선천적 역사 예언도 아니며, 주관적 관심에 제한된 목적론적 역사 연구도 아니다. 그것은 그 이전엔 찾아볼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역사 연구 방식이며 역사 연구의 내용이다.¹³⁾

칸트의 다음 논의를 추적하기 전에 우리는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을 대표하는 개념인 ‘역사징표 Geschichtszeichen’에 잠시 주목해 보자. 이 개념이 등장하는 곳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탐구해야만 한다. 그 사건은 위와 같은 [현상] 원인의 현존 및 그것의 인과성의 행위Act ihrer Causalität를 지시하는 사건일 것이다. (...) 또한 그 사건은 [지금의 칸트는 미래 역사의 진보를 입증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보다 나은 것’으로 나아가감’이 그것으로부터 불가피한 귀결로서 추론되는, 그와 같은 사건일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추론을 [미래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로 확장할 수도 있다.

13) 2012년의 논문에서 나는 이것을 “제3의 역사철학”이라고 표현했다.(참조: 이충진, 「정치와 역사 - 칸트의 경우」, 16쪽, 각주 27) 이러한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이 가진 현재성에 관해선 특히 다음을 참조: Angehrn, “Geschichtsphilosophie”, 342-347.

단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그 사건을 후자[과거의 진보]의 원인으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즉] 역사징표로서 간주해야만 하며, 그리고 바로 그렇게 우리는 인간종의 (...) 방향성Tendenz을 증시할 수 있게 된다.” (§5:83)¹⁴⁾

앞서 우리는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경험을 미래 사건의 현재 원인으로 이해했으며 그런 한에서 미래 역사의 예언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곳에서 칸트는 결코 과거 사건의 원인이 될 수 없는 이 현재의 사건을 (미래가 아닌) 과거 역사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칸트의 역사철학은 매우 독특한 방향으로 선회한다. 즉 칸트는 현재 사건을 ‘과거 사건과 연관시킬 때’ 그것(현재 사건)에게 하나의 독특한 기능을 부여한다. 이 기능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과거 역사에 눈을 돌리는 경우, 현재 사건은 일종의 기준점으로서, 즉 그것에 기준해서 과거의 어느 한 사건에 (과거) 역사 진보의 원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qualifizieren* 기준점으로서 기능한다; 그것은 한편으로 현재 사건에 상응하는 과거 사건이 특정 시점에 등장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며, 다른 한편 그것을 찾는 시선의 방향성(도덕적 진보 여부)을 규정한다. 이와 같은 기능은 물론 미래지향적 시선에도 가감 없이 적용된다: 현재의 한 사건은 - 연이어 등장하는 사건의 원인일 뿐만이 아니라 - 그 이후의 미래에 등장할지도 모를 어떤 사건을 진보의 원인으로 판단하도록 만드는 기준의 역할을 한다.¹⁵⁾

14) 원문은 다음과 같다: “Also muß eine Begebenheit nachgesucht werden, welche auf das Dasein einer solchen Ursache und auch auf den Act ihrer Causalität im Menschengeschlechte unbestimmt in Ansehung der Zeit hinweise, und die auf das Fortschreiten zum Besseren als unausbleibliche Folge schließen ließe, welcher Schluß dann auch auf die Geschichte der vergangenen Zeit (daß es immer im Fortschritt gewesen sei) ausgedehnt werden könnte, doch so, daß jene Begebenheit nicht selbst als Ursache des letzteren, sondern nur als hindeutend, als Geschichtszeichen (*signum rememorativum, demonstrativum, prognostikon*), angesehen werden müsse und so die Tendenz des menschlichen Geschlechts (...) beweisen könnte.”

15) 이런 맥락에서 보면, 칸트에게 있어서 역사의 진보란 미래 시간 속에서 예측되어야 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과거 시간 속에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조: “지금까지 엄밀한 이론으로 여겨질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인류는 더 좋은 것을 향해 지금까지 항상 나아갔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7:88)

이와 같은 기능은 ‘하나의 현재 사건은 자신을 역사적 사건(미래 진보의 원인)으로 현시하고, 과거 특정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회상하도록 만들며, 미래의 특정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 예측하도록 만드는 기능에 다름 아니다. 이와 같은 “회상하는, 현시하는, 예측하는 기호 *signum rememorativum, demonstrativum, prognostikon*”로서의 역사징표를 중심으로 과거에서 현재까지의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현재에서 미래까지의 인류 역사를 미리 내다보면, ‘보이게 되고 예측되는’ 역사 안에는 분명 하나의 ‘방향성’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보다 나은 것으로 나아감 *Fortruecken zum Besseren*” (§5:83)이라는 방향성이 그것이다.¹⁶⁾

IV. 역사의 진보 - 관찰자의 사유방식

미래 역사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하나의 현재 사건을 발견하는 것이 되, 이 사건은 미래 사건을 위한 원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한다. 미래 역사를 ‘진보하는’ 역사로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 발견된 ‘원인으로서의 현재 사건’이 특정한 결과 즉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감’을 귀결시키는 도덕적 원인이어야 한다. 그와 같은 “인류의 도덕적 방향성을 증명해주는 하나의 사건”을 칸트는 “자신의 시대”에서 발견한다.(§6:84)

칸트가 발견한 사건은 우리가 흔히 역사적 사건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다. 가령 근대 서구 역사의 전환점들 중 하나인 - 칸트가 직접 목도했던 -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다. 칸트가 주목한 것은 공간 시간상에 등장했던 사건으로서의 대혁명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및 태도 - 칸트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 “관객들의 사유 방식”이

16) 클라인켈트는 ‘자유 이념의 규제적·경험적 사용’ 및 ‘예지적 자유의 감성적·경험적 징표’ 개념에 의존해서 ‘역사징표’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 후자는 역사 이해를 미학적 이해로 오독할 위험이 있다. 또한 전자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해석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곳의 인과관계를 두 세계 사이의 관계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유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참조: Kleingeld, *Fortschritt und Vernunft*, 71-78)

있다. 거대한 정치적·사회적 변화를 한 걸음 떨어져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가슴 속에 등장하는” “지극히 보편적이면서 이기적이지 않은 지지支持 eine so allgemeine und doch uneigennützige Theilnehmung”, 위험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 “거의 열망에 가까운, 동참하고자 하는 소망eine Theilnehmung dem Wunsche nach” 등과 같은 관객들의 반응이 그것이다.(§6:84)

이 사건은 미래 역사를 예언하기 위해 우리가 찾고 있던 것의 자격을 두 측면 모두에서 가지고 있다. 첫째, 그 사건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능력을 지시해 준다. 왜냐하면 그 사건은 ‘관객’의 행위로서 (‘선수들’과 달리) 특수한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에 제한된 특수성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사건은 인류의 도덕성을 지시해 준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싸우고 있는 어느 한 편에 손을 들어줌과 함께 자신에게 초래되는 “편파성”이란(§6:84) 불이익을 기꺼이 감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¹⁷⁾ 이와 같이 그 사건은 선한 행위를 하는 보편적·도덕적 행위능력(원인성)이 인류 안에 존재함을 지시한다.

둘째, 그 사건은 미래 진보를 귀결시키는 현재 원인으로 작용한다. 다만 이 경우 원인·결과의 작동방식은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다. 칸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대혁명에 대한 동시대인의 반응은 우선 현시점에서 우리에게 인간 본성 안에 있는 더 나은 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소질과 능력을 드러내 준다. 이때 드러난 인류 모습의 중요성과 그것을 드러낸 사건의 중요성은 - 그것의 중요성 때문이라도 - “앞으로 다시는 망각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사건은 “적당한 여건만 주어지면 그를 계기로 언제라도 사람들의 기억에 되살아날” 것이며,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미래에 “동일한 종류의 시도가 또다시 반복되도록”(§7:87 & 88) 만들게 될 것이다. 이렇듯 그 현재 사건은 미래 시점 중 어느 때고 진보의 원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칸트는 자신이 발견한 그 사건에 근거하여 - 그리고 그 사건의 해석에 관한 자신의 역사철학적 방법론에 입각해서 - 자신의 “철학적 예언”을 제시

17) 그 외에도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6:84 참조.

한다: “우리 시대의 모습과 조짐에 따라 [판단하건대] 인류가 이와 같은 [진보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임을 나는 예언할 수 있다.” (§7:87)

V. 진보의 외적 조건 - 현실적 여건

미래의 도덕적 역사는 진보하는가? 칸트는 그의 방법론적 논의의 결과에 근거하여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다. 인류의 도덕적 능력이 현상 사건을 만들어내되 그것이 동시에 후속할 현상 사건의 방향(‘더 좋은 것’)을 결정하는 원인의 위상을 갖는다는 점에 그와 같은 예측이 토대하며 또한 역사 진보에 대한 주장이 토대한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하나의 이론적 문제가 등장한다. 예지적·도덕적 능력(원인성)과 현상적 사건 사이에는 시간상에 존재하는 두 개의 사건 사이처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자로부터 후자가 법칙적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며, 전자의 확인이 후자의 예측을 법칙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자와 후자는 시간상에 계기적으로 등장하는 사건들(선행적 사태와 후속하는 사태)이 아니라 예지적 세계와 현상적 세계라는 전혀 이질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미래 예측의 가능성은 담보되지 않으며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주장 역시 정당화될 수 없다.

이 문제의 원천은 칸트의 이원론이 되 – 많은 경우 그렇듯이 이곳에서도 - 해결의 실마리 역시 이원론이 제공한다. 이 문제의 해결은 역사 연구의 방법론에 관한 칸트의 생각에서 발견된다. 그를 위한 단서는 ‘경험적·현실적 여건들Umstaende’에 관한 칸트의 언급이다.

현상계와 예지계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도덕적 능력과 현상적 사건의 관계는 시간상의 원인·결과 관계가 아니라 ‘행위자와 행위’ 내지는 ‘창출자와 창출된 산물’의 관계이다. 그런데 가령 ‘신의 선한 의지는 동시에 선한 행위를 귀결시키겠지만 인간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예지적·선한 의지가 현상계 안에서 선한 행위를 창출하

는 것은 의지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선한 의지의 실현은 특정 시간·공간상의 현상적·경험적 맥락에 Kontext, 즉 자신이 선택하거나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선행적으로 주어져 있는 실재 여건들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 이와 같은 외적·현실적 여건은 동시에 미래 예측의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이기도 하다. 칸트가 말하듯, “하나의 주어진 원인으로부터 하나의 사건이 결과 Wirkung로서 예언되는 것은 그에 함께 작용하는 wirkend 바의 여건들이 [동시에] 등장하는 경우” 뿐이기 때문이다. (§5:83) 미래 진보의 예측은 분명 예지적 원인성의 확인에 근거하지만 그러한 예측의 가능성은 제한적인바, 즉 그것은 현상적 여건들에 대한 예측에 의해 범위, 내용 등이 제한 받는다.

이렇듯 진보에 호의적인 여건의 존재 여부는 ‘역사는 진보한다.’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근거이며, 미래 특정 시점에 그러한 여건이 존재할 것임을 예측하는 것은 미래 진보의 예측을 위한 추가적 과제인 셈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여건의 예측과 존재는 역사 진보의 인식론적 근거이자 존재론적 근거이다.¹⁸⁾

비록 칸트가 충분한 언급을 남겨두지 않았고 칸트 연구자들 역시 충분히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여건’에 관한 칸트의 언급들은 『논쟁』의 칸트 역사철학을 이해하는데 매우 주요한 부분인 듯이 보인다. 실질적 맥락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만일 우리가 역사 진보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 즉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하지만 적대적인 여건 안에서 선한 행동의 실현을 기대하는 것은 경험 세계 내지는 역사 세계에선 지극히 힘든 일이다. - 외적·경험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선한 의지는 진보의 ‘가능적’ 원인에 머물 뿐이며 따라서 실질적인 진보는 일어나지 않는다. 도덕적 존재

18) 이곳의 ‘예측’은 삼단논법의 구조를 가진다. 확보된 대전제(예지 원인) 아래에 포섭될 수 있는 소전제(현상적 여건)를 찾는 것이 결론을 귀결시키는(미래 예측) 행위이다. 또는 근대 자연과학의 실험행위에 비추어 말하자면, ‘여건’은 보편 이론/가설로부터 개별 사실(실험 결과)을 이끌어낼 때 선행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실험의 외적 조건(초기조건)에 상응한다. ‘여건’의 논리적 위상은 그와 같다. 경험과학자의 눈으로 보자면, 여건의 탐구는 진보 시점 예측의 정확도를 증가시킨다.

자는 역사 진보를 귀결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 - 역사 진보를 원하는 사람은, 즉 역사 진보를 한갓 희망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행위 외에 또 다른 추가적 행위를 해야 하며, 기꺼이 하고자 할 것이다. 도덕적 자유의 실현을 용이하게 만드는, 심지어 가능하게 만드는 외적 여건을 창출하는 것이 그것이다.

칸트가 생각하는 역사 진보의 실질實質은 도덕성의 증대이되 칸트가 예측하는 진보의 모습은 합법성의 증대인바, 역사 진보를 위한 여건의 창출이란 다름 아닌 합법적 국가체제의 창출·유지이다.(§9:91 참조)¹⁹⁾ 경험적으로 생각하면, 합법적 국가의 국민이 반-합법적 국가의 국민에 비해 보다 더 도덕적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며,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 자기 이익 추구자들도 합법적 국가 체제의 창출과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²⁰⁾ - 도덕적 능력이 여건 창출의 선행적 가능 조건일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논쟁』의 마지막 단락은 바로 이러한 여건 창출이 현실에서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전략적 문제를 다룬다. 이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단호하고 분명하다: “사물들의 진행과정”이 그러하듯이 역사의 진보 역시 “위에서 아래로 von oben herab”만 실현될 수 있다.(§10:92)²¹⁾

만일 우리가 현실 국가를 염두에 둔다면 ‘위와 아래’는 정치적 권력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에서 아래로’가 소수 권력자에 의해 독점·주도되는 국가 개혁을 의미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논쟁』의 도입부에서 명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권

19) 클라인겔트는 이것을 “희망의 제한”이라고 표현한다.(Kleingeld, *Fortschritt und Vernunft*, 82)

20) 참조: “국가를 조직한다는 것은 악마의 종족에서조차 가능할 수 있다.”(칸트,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51)

21) 클라인겔트는 §10을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칸트는 이곳에서 “인류 진보의 예측을 ‘최고 지혜가 세계를 통치한다.’라는 전제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것은 칸트의 “관점의 본질적 전환”을 의미하는바, 즉 칸트는 “§5-§7의 전체 논의는 미완성의 unvollstaendig 논의이다.”라고 천명하고 있는 셈이다.(인용 및 참조: Kleingeld, *Fortschritt und Vernunft*, 83-85) 하지만 그의 해석은 역사 예측에서 ‘여건’의 중요성을 간과함으로써 초래된, 잘못된 해석으로 보인다.

력자들의 행태에 대한 칸트의 비판과 상충하기 때문이다(참조: §2:78-79). 그러므로 ‘위에서 아래로’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

먼저 이성법 이론가의 눈으로 보면, 권리공동체(국가) 안에서의 ‘위와 아래’는 시민권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지칭한다. 이 중 ‘아래’는 공동체 일에 참여할 권한을 갖지 못한 자이며, 공동체 안에서 단지 비공동체적 사안(사적 이익)에만 관심과 권한을 가진 자이다. 이들은 당연히 국가 창출 및 유지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위’일 수 있는 사람들이란 공적 사안을 담당하는 자이자 정치적 존재자로서의 시민뿐이다. 그 다음 경험적 법 이론가의 눈으로 보면, 시민권자의 외연을 확정하는 과제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두된다. 가령 ‘선거권자의 연령을 몇 살로 정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그것이다. 이 과제의 해결을 위한 선천적·절대적 기준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정치적 시민의 외연은 현실 정치공동체에서 지배 권력을 가진 몇몇 정치가로 제한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반대로 - 가령 대리인 제도 등을 통해서 - 현실적 참정권을 갖지 않는 잠재적·소극적 시민까지 확장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해보면, 칸트가 생각하는 ‘어떻게’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이해될 수 있다: ‘위에서 아래로’는 - 원리적으로 - ‘모든’ 실질적·가능적 시민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물들의 진행과정’이다. 이것은 다시 다음을 함축한다: 마치 자연 법칙의 ‘외부에’ 어떤 자연 사물도 존재할 수 없듯이 모든 인간은 역사 진보의 ‘내부에’ 자신을 위한 자리를 가지고 있다.

역사적 사건은 “혁명의 모습”을 갖겠지만 역사의 진보는 “자연법에 따른 진화의 모습”을 (§7:87) 가진다.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사람들은 자신의 힘을 앞세워 거대한 사건을 일으키고 그것을 역사 진보라고 우길 수 있겠지만, 힘을 갖지 못한 다수에겐 그런 기회나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거대한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현실 국가를 천부적 자연권에 맞는지 살펴보고 자신에게 주어진 정치적 권한의 범위 안에서 자신의 국가를 ‘보다 나은 것’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뿐이다. 영웅의 행동과는 전혀 닮지 않은 그와 같은 일상의 정치행위가 ‘위’에게 허용된 유일한, 그러나 진정한 역사 진보 행위이다.

VI. 목적론 없는 역사 진보

『논쟁』의 칸트는 “역사의 진행 과정 속에 하나의 추측을 집어넣고자”²²⁾ 시도하지도, 역사의 진보를 “실천적인 의도를 갖고 추천할만한” (§7:88) 것으로 제시하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역사의 진보를 엄밀한 이론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 후기 칸트의 역사철학은 그 이전의 어떤 텍스트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었다. 「이념」과 『영구평화론』의 역사철학을 지배했던 자연목적론이 이 마지막 텍스트에선 그 흔적조차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새로움을 증시하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후기와 전기/중기의 유사성, 가령 칸트가 모든 시기에 역사의 진보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이나, 진보의 방향이 언제나 법적·도덕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 등 역시 새로움을 희석하기엔 한갓 지역적인 요소일 뿐이다.

우리는 말년의 칸트가 이와 같이 전혀 새로운 역사철학을 구상하게 된 이유를 알고 있지 못하다. “새롭게 제기된 물음 *erneuerte Frage*”이라는²³⁾ 소제목조차 우리에게 충분한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후기 역사철학의 전기 역사철학과의 내용적 다름뿐이다. 중요한 몇 가지는 다음과 같다.

「이념」의 칸트는 ‘다양한 현상들이 하나의 역사로 통합·이해될 수 있는가?’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역사 문제에 접근했다. 그 결과 역사 담지자 내지 역사 주체는 관찰된 모습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었다. 인간은 자기 목적자로서 자신의 모든 가능성(잠재적 본성/자연)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였으며, 역사는 그것의 총체적 진행과정(문명화, 문화화)이었다. 반면에 중기의 칸트

22) 칸트, 「추측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 75.

23) Kant, *Der Streit der Fakultäten*, 77, 소제목. ‘새롭게 제기된 *erneuerte*’은 칸트가 이 텍스트를 집필하게 된 동기를 알려줄 수 있는 유력한 단서이지만, 이에 관한 해석은 연구자마다 각기 다르다.(참조: Kleingeld, *Fortschritt und Vernunft*, 68, 각주 2)

에선 도덕적 존재자의 자기실현이라는 당위가 역사적 존재자의 시선을 先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해서 역사 주체는 당위 아래서 행동하긴 하되 그러나 동시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자로서 이해되었다. 때문에 역사는 초인간적 힘(자연)에 의해 당위행동의 실현이 보장되는 장場으로서 등장해야만 했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초기와 중기 모두 역사의 목적론적 이해가 불가피했었고 ‘인류의 역사를 자연의 역사로 서술하는 부조리함’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다.²⁴⁾ 반면에 후기 칸트는 자신의 “인식론적 신중함 epistemische Bescheidenheit”²⁵⁾ 상응하여 방법론적 검토에서 출발한 후 그것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역사에 대해 언급함으로써 목적론적 역사에서처럼 역사 진보를 주관적 사유구성물로 격하시키지도 않고 동시에 역사법칙성 같은 과감하지만 불합리한 주장에 빠지지도 않았다. 『논쟁』의 역사 주체는 사건을 해석하는 자로, 그를 통해서 스스로를 역사적 존재자로 전환시키는 자로 등장했고, 역사는 그러한 역사적 자각과 그에 수반한 역사적 행위로 구성되는 진행과정으로 제시될 수 있었다.²⁶⁾

둘째, 역사철학자로서의 칸트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각각 전혀 다른 청중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점 역시 후기 역사철학이 전기/중기와 다른 모습을 갖게 된 주요 원인이다. 가령 『영구평화론』에서 자연목적론에 입각한 평화의 보장을 이야기하고 자연을 인류 역사 진보의 보증자로서 제시할 때,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독자는 현실의 권력자들, 즉 자신을 역사의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는 권력자들이었다. 반면에 『논쟁』의 칸트가 염두에 두고 있는 청중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는 일반 “시민”이었다.²⁷⁾ 역사철학자가 전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말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의식적 역사 창출 행위가 특정 방향/모습의 것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겠지만²⁸⁾ 반면에 후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

24) 『논쟁』에 있어서야 칸트는 비로소 “문명적·도덕적 진보가 자연의도의 결과물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인간들의 통합된 노력의 작품임”(Honneth, “Geschichte als Fortschritt?”, 144) 제시할 수 있었다.

25) Angehrn, “Geschichtsphilosophie”, 343.

26) 이에 관해서는 특히 다음을 참조: Honneth, “Geschichte als Fortschritt?”, 133-136.

27) 인용 및 참조: Brandt, “Zum <Streit der Fakultäten>”, 217.

28) 참조: 이충진, 「정치와 역사 - 칸트의 경우」, 11-13.

‘역사’ 역사 진보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증을 위해 필요한 것은 먼저 역사가 진보한다는 사실, 그리고 진보에 기여할 가능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사실, 그 가능성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에 의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는 것이다.²⁹⁾ 이와 같은 확신의 이론적 제공이란 곧 “승자의 의도와 행위의 산물”로서의 역사 이해를 극복하고 “승자라고 참칭하는 자들의 손에서 역사를 빼앗은”³⁰⁾ 후 역사를 일반인의 손에 넘겨주는 작업에 다름 아니다.

셋째, ‘역사를 이야기할 때 어떤 청중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역사 철학자의 개인적 관심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다. 역사를 철학적 논의의 장으로 끌고 들어오는 개인적 동기 말이다. 우리는 칸트의 그것을 『논쟁』의 시작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어떻게 미래 역사를 선천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답하는 한 가지 방식은 ‘예측하는 자가 자신이 예측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2:78) 것이다.’라는 대답이다. 이러한 대답을 제시하는 사람으로 칸트는 다음과 같이 세 부류를 제시한다. 자신의 국가의 몰락을 예언하고 동시에 그 몰락에 실제로 기여했던 유대 예언자들, “부당한 강제와 기만적인 음모”를 통해 국민을 망가뜨린 후 “고삐를 약간 늦추기만 하면” 국가가 퇴보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당시 정치가들, 자신의 반종교적 행위를 통해 종교의 붕괴에 기여하면서 그것을 예언하는 당시 성직자들 등이 그들이다. (§2:78-79) 칸트가 그러한 대답을 “조롱하고 mokieren”³¹⁾ 있는 이유는 그것의 이론적 불합리함 때문이기 보다는 대답하는 자들의 뻔뻔함 때문인 듯이 보인다. 그들의 시각에 따르면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일 것이며 대다수 사람들은 영원히 역사의 주변부에 머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보면 『논쟁』에서 칸트는 ‘자연의 역사로부터 인류의 역사의 전환’만이 아니라 ‘소수의 역사로부터 모두의 역사의 전환’ 역시 시도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노년의 칸트가 이 오래된 주제에 다시 관심을

29) 참조: “칸트는 철학[적] 역사의 동기부여적 기능motivationale Funktion을 매우 강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Angehrn, “Geschichtsphilosophie”, 346)

30) Honneth, “Geschichte als Fortschritt?”, 126 & 127.

31) Honneth, “Geschichte als Fortschritt?”, 126.

갖게 된 개인적 동기로서 우리는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을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는 결코 역사라는 하나의 층위를 인간 삶에서 배제할 수 없다. 아무리 전문연구자들이 “오늘날 역사철학을 거론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라고³²⁾ 공공연하게 선언해도 그러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론가는 역사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우연적이고 파편적인 사건들의 집합체로서 내 눈앞에 놓여 있는 사건들 안에서 이론가는 어떠한 합리성·이해가능성을 찾아내야만 한다. 역사에 대한 철학적 연구는 인간 이해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바, 연구의 성과가 아무리 제한적일 지라도 우리는 역사철학을 포기할 수 없으며 포기해서도 안 된다. 200년 전 76살의 칸트는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모델로 보인다.³³⁾

투 고 일: 2014. 01. 29.

심사완료일: 2014. 02. 10.

게재확정일: 2014. 02. 11.

이충진
한성대학교 교양학부

32) Angehrn, “Geschichtsphilosophie”, 11.

33) 2000년의 논문에서 나는 「이념」의 칸트 역사철학을 ‘실용주의 역사철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실용주의란 이때 “모든 역사탐구에는 하나의 주관적 목적이 선행하며, 역사 탐구는 이 목적을 위한 유용성을 가지는 한에서만 성립한다.”라는(이충진, 칸트의 역사철학 - 실용주의 역사철학을 위한 시도, 174)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동일한 논리에 근거하여 인간의 이론적 활동을 ‘모두 다’ 실용주의라고 부를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분명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칸트 해석은 2012년의 논문에서도 지속되고 있다.(참조: 이충진, 「정치와 역사 - 칸트의 경우」, 16쪽, 각주 27) 2014년의 이 논문은 한편으론 그와 같은 이전의 오류를 수정하고 동시에 다른 한편 당시 언급했던 “좀 더 세분화된 논의”를(같은 곳)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수배, 『역사 속의 이성, 이성 안의 역사』, 철학과현실사, 2004.
- 이충진, 「칸트의 역사철학 - 실용주의 역사철학을 위한 시도」, 『철학』 제62집, 한국철학회, 2000.
- _____, 「정치와 역사 - 칸트의 경우」, 『사회와 철학』 제24집, 사회와 철학연구회, 2012.
- 이한구, 「칸트와 목적론적 역사」, 『철학연구』 제24집, 철학연구회, 1988.
- 칸트, 『순수이성비판』, 최재희 역, 박영사, 1977.
- _____,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 이한구 옮김, 서광사, 1992.
- _____, 『칸트의 역사철학』, 이한구 편역, 서광사, 1992.
- _____, 「세계 시민적 관점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In: 칸트, 『칸트의 역사철학』.
- _____, 「추측해 본 인류 역사의 기원」, In: 칸트, 『칸트의 역사철학』.
- Angehrn, E., “Geschichtsphilosophie - Kant und die gegenwaertige Geschichtsphilosophie”, In: Heidemann, D.(Hrsg): *Warum Kant heute?*, Walter de Gruyter, 2003.
- Brandt, R., Zum “Streit der Fakultaeten”, In: *Kant-Forschungen 1*, Felix Meiner, 1987.
- Honneth, A., “Geschichte als Fortschritt? - Kants Geschichtsphilosophie und die Gegenwart”, In: Recki, B.(Hrsg.): *Kant lebt*, mentis Verlag, 2006.
- Kant, I., *Kleine Schriften zur Geschichtsphilosophie, Ethik und Politik*, Hrsg. K. Vorlaender, Felix Meiner Verlag, 1913.
- Kant, I., *Der Streit der Fakultaeten*, Hrsg. Reich, K., Felix Meiner Verlag, 1975.
- Kleingeld, P., *Fortschritt und Vernunft - Zur Geschichtsphilosophie Kants*, Diss., Koenigshausen & Neumann, 1995.
- Oelmueller, W.(hrsg), *Philosophische Arbeitsbuecher 4. Diskurs: Geschichte*, 3. Aufl., Ferdinand Schoeningh, 1995.

ABSTRACT

Late Kant and the Philosophy of History

Lee, Choong-Jin

Most of Kant's philosophies of history are understood as being based on a teleological philosophy of history. Accordingly, the history of humanity is a part of the 'history of nature', which is planned and processed by it. The methodological principle is the finality of 'the reflective judgment'. However, Kant's last work, "The debate between faculties" (especially Part Two) provides a completely different understanding of history: The nature-teleology perspective does not appear anymore; the proposition 'the history of humanity will progress' is presented as a proposition which has an objective validity. The subject of this paper is the historical philosophy of Kant's later life. It begins with the problem of 'how to study history', and it pays attention to the issue of 'the sign of history (Geschichtszeichen)' to reveal its cognitive function. Based on this, we will see the history of the future that might have been predicted (wahrsagen) by Kant.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y of philosophy in Kant late works and verifies its present state.

Keywords: Philosophy of History, Teleology, Predict, the Sign of History, Progress, Kant

